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

김 영 철**

논문 초록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의 이면에는 우수 대학 입학이 가져오는 ‘학벌’ 효과가 기저에 존재한다. 이제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출신대학의 서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 즉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학력 및 출신대학의 서열에 따른 비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학력수준(7단계) 변수를 구성하고, 만족도와 차별 경험 관련 응답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 및 현재의 일자리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승진,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의 차이로도 뒷받침되었다. 학력(학벌)에 따른 이러한 비경제적 효과는 소득과 종사상 지위 등 경제적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학력, 대학서열, 만족도, 차별 경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I26, I31, J71

투고 일자: 2015. 8. 1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5. 10. 19. 게재 확정 일자: 2015. 11. 19.

* 본 논문의 작성에는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라는 제목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김영철·김희삼, 2012) 중 저자의 기술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사려 깊은 조언을 가감없이 건네 준 한국개발연구원의 동료들과 유익한 논평을 통해 도움을 준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혀 둔다.

**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조교수, e-mail: yckim@smu.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우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보편화된 선행학습과 고액의 입시컨설팅 등 과중한 학원비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계의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의 이면에는 고착화된 대학 서열구조와 우수 대학 입학이 가져오는 ‘학벌’ 효과가 기저에 존재한다.¹⁾ 우리나라 수험생들의 ‘학벌’에 대한 집착은 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구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응시생의 약 21.6%가 재수생으로 확인되고, 서울의 경우에는 응시생의 무려 32.2%가 재수생으로 나타나고 있다(2011학년도 기준). 산술적으로만 살펴보면, 거의 절반의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게다가 최상위인 1등급(수리영역 기준)을 취득한 응시생 중 재수생의 비중은 무려 40.2%에 이르렀다. 즉, ‘대학수학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상위권 대학 혹은 명문대 진학을 위하여 1년 이상을 허비하는 이들이 허다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낭비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수현상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²⁾

이러한 특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진학이 인적자원의 축적수단 이상으로 ‘학벌’ 획득의 경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시켜 준다. 출신대학의 ‘간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³⁾ 예를 들어, 『2010년도 교육여론조사』(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

1) ‘학벌’의 사전 상 정의는 1)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 2) 학문을 닦아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혹은 3) 출신 학교나 학파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벌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는 이중 첫 번째 정의에 입각하여 ‘학벌’을 논한다. 이는 수직적 학력(중졸, 고졸, 대졸 등)의 차이와 출신대학의 서열 상의 지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재수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뒤의 편입 경쟁도 상당하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편입학 시험의 경쟁률이 평균 100:1을 넘어서고 있다.

3) 관련된 연구로서 이수정(2007)이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명문대 위주 대입관’이 사교육비 지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한 바 있으며, 유한구(2009)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함으로써 사교육의 주요 원인이 공교육 부실보다는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의 지위경쟁에서 비롯되었음을 논한 바 있다. 또

체 응답자 중 무려 48.1%가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성실성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단 29.7%에 불과하였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의 최근 설문문에 따르면, ‘미래를 위해서라면 편입·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무려 71.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⁴⁾

출신대학의 서열이 개인의 사회적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최근 십여년 간 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도적인 연구로서, 장수명(2006)과 한준·한신갑(2006)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상위권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경희·김태일(2007)과 김진영(2007)은 개인의 능력을 수능성적 혹은 학력고사 성적을 이용하여 통제하였고, 이렇게 개인의 능력을 통제한 뒤에도 상위권 대학 출신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여기서 보다 진일보한 연구로서 김희삼·이삼호(2007)가 동일한 수능성적에도 불구하고 서열 상 보다 하위인 학과에 진학하였을 때 ‘임금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학벌’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외에 김홍균·이지민(2010)이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편입생 역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과도한 편입학 경쟁의 경제적 유인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규용·김용현(2003)은 4년제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분석하여 출신대학이 미취업으로부터의 ‘탈출’ 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일부의 연구는 출신대학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호영(2007)은 대학 평균 수능점수를 활용하여 개인의 지적 능력을 통제할 경우 지방대 졸업생들에 대한 임금 페널티는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⁵⁾ 김진영(2011)은 학과 평균 학력고사 점수를 활용하여 개인의 능력을 통제하였을 때, (수학능력시험 시대의 대졸자들과는

한, Lee(2007)의 연구는 한국이 미국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선별이 대학졸업 단계가 아닌 대입입학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논하고 있다.

4) 한국리서치와 한국일보 공동 주관의 20-59세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4년 11월 20-24일 진행).

5) 이에 비해, 남기곤(2011)은 도구변수(‘인천과 경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여부’ 활용)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능력을 갖추더라도 지방대학이 아닌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15-20%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달리) 학력고사 시대의 대졸자들에게는 출신대학의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대졸자들에게서 졸업 직후의 명문대(상위 3개 대학) 프리미엄은 명확히 관찰되었다.

이상과 같이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내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다수의 연구들이 출신대학의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입증하고 있으나, 개인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그 효과는 상당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지방대 졸업여부, 학력고사 여부 등) 하에서의 서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벌’의 효과를 경제적 요소 특히 임금에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한국리서치의 동일 설문에 따르면, ‘학력이 좋을수록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쉽다’란 질문에 82.8%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 정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질문에도 76.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학벌’의 위력은 경제적 보상인 ‘임금 프리미엄’을 크게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혼과 사회생활, 원하는 직업의 선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등 심리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대로 설혹 출신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넘어선 비경제적 효과 역시 무시할만한 수준인지는 면밀한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학력 및 출신대학의 서열 이상의 비경제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규명해 본다. 당 패널자료는 개인의 만족도 관련 설문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7차 조사에서는 차별적 경험 관련 조사를 특별설문의 형태로 추가한 바 있다.

우선, 만족도 관련 분석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로 구분하여 진행해 보았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아성취, 명예, 안정감,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직장 및 사회생활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 여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리 만족도’는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를 나타낸다. 단순히 임금수준 및 일자리의 안정성을 넘어서서 업무환경, 전공과의 일치, 동료관계, 사내분위기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설문에서 사용된 5단계 만족도 응답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와 ‘보통 혹은

만족스럽지 않다’의 2단계로 구분한 뒤, 학력수준이 더미변수인 ‘만족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포괄적인 분석을 위하여 학력(학벌)을 구분하는 ‘학력수준’ 변수를 다음의 7단계로 구성하였다: 상위권대, 중상위권대, 중위권대, 기타 4년제대, 전문대, 고졸, 중졸 이하. 여기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학벌’을 나타내는 ‘수직적’ 학력 변수(즉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 여부)와 현대적 의미에서 ‘학벌’을 나타내는 출신대학의 서열상의 지위(즉 상위권대, 중상위권대, 중위권대, 기타 4년제대 여부) 변수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 따르면, 생활측면에서의 전반적인 만족 여부와 현재 일자리에서의 만족 여부 모두 학력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만족률(즉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할 확률)이 10%p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인 경우에는 (전문대졸에 비해) 만족률이 5%p가량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과 종사상의 지위(즉, 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구분) 등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의 변수를 모두 통제한 뒤의 추정결과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요인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학벌’의 ‘만족도 상승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분석에 따르면, 상위권대(입학성적 상위 10개대) 졸업생의 경우 타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만족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률에서는 무려 10%p가량의 추가 상승이 확인되었고,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에서도 약 5%p가량의 추가 상승이 관측되었다. 이는 명문대의 임금 프리미엄을 확인한 이경희·김태일(2007) 및 김진영(2007) 등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흔히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라고 하나 최소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수준 및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수준에 있어서는 그 성적 순이 뚜렷하게 목격되는 것이다.⁶⁾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만족률의 차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차별적 경험 관련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 내 학벌 차별의 심각성에 관한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도 교육여론조사』(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

6)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는 1989년도에 개봉한 국내 영화로서 당시 과열된 입시경쟁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있다. 성적을 비판한 한 여중생의 실제 자살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답이 전체의 58.3%에 이르렀고,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39.5%에 이르렀다. 『2011년도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매우 많이 존재한다’라는 응답과 ‘약간 존재한다’라는 응답이 각각 58.6%와 38.3%로 나타나 앞서 『교육여론조사』의 결과와 대동소이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리서치의 설문(2014년 12월)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질문에 무려 85.7%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 7차 조사를 활용하여 취업, 승진(승급), 일반적인 사회생활 각각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차별 관련 분석을 시도하였다. 당사자의 주관적인 응답이므로 실제 현장에서 차별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응답 결과를 차별적 처우를 인지할 확률, 즉 ‘차별적 처우 인지율’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 등을 통제한 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경우 취업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전문대졸에 비해) 약 5~10%p가량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대졸에 비해) 약 6%p가량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승급)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도 4년제대 졸업자인 경우 (전문대졸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약 3~4%p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경우에는 전문대졸과 4년제대 졸업자 사이에서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반면, 고졸 및 중졸이하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각각 4%p와 10%p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학력(학벌)’ 차별의 심각성에 관한 국내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일정부분 뒷받침하고 있으며,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격차의 원인에 대해 그 실제적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본고의 분석작업은 학력수준 외에도 만족률과 차별적 처우 인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을 함께 검토해 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대체로 간강상태가 양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기관(시각, 청각 등)의 장애 여부가 차별적 경험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인 경우 동일 조건이더라도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률과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자료의 특성 및 변수의 구

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격차를 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보조적인 분석 차원에서 학력수준에 따른 차별적 처우 인지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II.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본 연구에 활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와 이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⁷⁾ 크게 가구용 조사와 개인용 조사로 나누어지며, 가구용 조사는 원표본 가구인 5,000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용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에 소속된 만 1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작업은 차별경험 관련 특별 설문이 포함된 7차연도의 개인용 조사 자료를 기본 토대로 한다. 다만, 표본에 포함된 개인들에 대한 학력수준 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4~6차연도의 개인용 조사 자료로부터 이수학력 및 출신대학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으며, 8차연도 조사에 포함된 신장(height) 관련 정보도 설명 변수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1~6차연도의 신규조사자용 설문 중 종교 및 자녀 출산 경험 자료도 추가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는 만족도 관련 응답 및 ‘차별적 처우 인지’ 관련 응답이 사용되었으며, 기본적인 설명변수로는 학력수준, 성별, 신장, 나이, 거주지, 만 14세 성장지가 포함되었다. 여기서 학력수준이 핵심적인 설명변수(variable of interest)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대상 표본은 노동패널의 7차연도 개인용 조사 자료에 포함된 11,661명 중 6가지 기본적인 설명변수들의 확보가 가능한 9,997명에 한정한다. 한편, 일부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적 보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과 종사상 지위를 설명변수군에 추가하였으며,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혼인 상태, 자녀출산 여부, 건강상태, 장애 여부, 종교 성향 등의 개인별 특성 변수와 근로시간, 초과근로 여부, 성과급제 여부, 산업분류 등의 일자리 관련 특성 변수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7) 1998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초기 표본을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에 해당하는 표본조사 가구 중 도시지역 거주 가구로 설정하였다.

〈Table 1〉 Variables and Basic Statistics

Variables	Observa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Academic Credentials	9,997	2.34	1.45	1	7
	Middle School or Below (1), High School (2), 2-year College (3), Other 4-year Universities (4), Middle 4-year (5), Middle-High 4-year (6), High 4-year (7)				
Female	9,997	0.52	0.50	0	1
	Female (1), Male (0)				
Height(cm)	9,997	164.87	8.44	103	198
	Height (cm)				
Age	9,997	42.39	16.51	14	95
	Age				
Current Household Residence	9,997	3.92	1.63	1	6
	Kangwon (1), Youngnam (2), Honam (3), Chungcheong (4), Gyeonggi-Inchon (5), Seoul (6)				
Residence at 14 Years old	9,997	3.45	1.53	1	6
	Kangwon (1), Youngnam (2), Honam (3), Chungcheong (4), Gyeonggi-Inchon (5), Seoul (6)				
Economic Reward Variables					
Monthly Wage (Log)	4,972	4.90	0.72	1.61	8.70
	Logarithm Value of Monthly Wage				
Job Status	5,542	2.29	1.48	1	5
	Regular Job (1), Temporary Job (2), Daily Worker (3), Self-Employed or Business Owner (4), Unpaid Family Worker (5)				
Satisfaction Variables					
Overall Life Satisfaction	9,948	0.31	0.46	0	1
	Satisfied/Very Satisfied (1), Neutral/Dissatisfied/Very Dissatisfied (0)				
Workplace Satisfaction	5,461	0.23	0.42	0	1
	Satisfied/Very Satisfied (1), Neutral/Dissatisfied/Very Dissatisfied (0)				
Discrimination Experience Variables					
Discrimination in Getting a New Job	7,400	0.18	0.39	0	1
	Have Experienced (1), Have Not Experienced (0)				
Discrimination in Promotion	6,540	0.06	0.23	0	1
	Have Experienced (1), Have Not Experienced (0)				
Discrimination in Social Life in General	9,315	0.08	0.27	0	1
	Have Experienced (1), Have Not Experienced (0)				

Other Control Variables					
Marital Status	9,997	1.85	0.57	1	3
	Never Married (1), Married and Living with a Spouse (2), Separated/Divorced/Widowed (3)				
Child Delivery	7,995	0.78	0.42	0	1
	Have Given Birth to a Child (1), Never (0)				
Current Health Status	9,997	3.40	0.86	1	5
	Very Poor (1), Poor (2), Fair (3), Good (4), Excellent (5)				
Overall Health Status	9,997	3.29	0.83	1	5
	Very Poor (1), Poor (2), Fair (3), Good (4), Excellent (5)				
Sensory System Disability	9,997	0.03	0.16	0	1
	Have Visual, Auditory Problems or Speech Impediment (1), Do Not Have Any Disability (0)				
Difficulties in Physical Activities	9,997	0.08	0.27	0	1
	Have Difficulties in Walking, Stepping Up or Lifting Heavy Things (1), Do Not Have Any Disability (0)				
Religion	9,989	1.90	1.01	1	5
	None (1), Buddhist (2), Protestant (3), Roman Catholic (4), Others (5)				

Source: KLIPS 7th wave is primarily used, and 1-6th and 8th waves are used supplementarily.

1. 종속변수 관련

본 분석에 활용한 만족도 관련 문항은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일자리 만족도)’이다. 원 설문에서는 각각에 대한 만족 수준을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의 다섯 가지 문항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만족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지 않음(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1과 0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인 생활만족 여부에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답한 비중은 31.1%이고, 일자리만족 여부에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답한 비중은 23.0%이다(〈Table 3〉 참조).

7차연도 조사에 포함된 차별경험 관련 설문에서,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 학력(학벌), 장애, 연령, 지역, 외국인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1) 일자리 취

업, 2) 승진이나 승급, 3) 일반적인 사회생활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취업, 승진(승급), 사회생활의 각 사항에 대해 ‘차별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는 1, ‘차별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에는 0이 부여되었다. 각 차별 사항에 대해 자신에게는 ‘해당 없다’라고 답한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각각에 대한 차별경험자 비중은 일자리 취업 시 18.3%, 승진이나 승급 5.7%, 일반적인 사회생활 7.8%로 집계되었다(〈Table 6〉 참조).

한편, 차별경험에 관한 설문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다시 말해, 응답자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실제로 차별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이’에 기초한 타당한 처우에 대해 당사자가 ‘차별’로 오인한 것인지를 구별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관측가능한 특성 혹은 기타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다르게 처우한 것은 ‘차이’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충분한 사후 설명을 청취할 수 없는 당사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그릇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이상의 응답을 실제 차별 ‘피해’ 경험 여부로 간주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분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차별적 처우 인지’ 정도로 간주하기로 한다.

2. 설명변수 관련

‘학력수준’ 변수의 구성에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학력 차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연한’과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이후의 현대적 의미의 학력 차이라 할 수 있는 ‘출신대학의 서열 상 지위’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크게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3), 기타 4년제대(4), 중위권대(5), 중상위권대(6), 상위권대(7)의 7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그룹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1%, 36.3%, 10.4%, 11.5%, 3.1%, 3.9%, 1.8%이다(〈Table 2〉 참조). 이 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우선 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각 개인의 학력변수를 이용하여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4년제대로 분류하였으며,⁸⁾ 그다음에 각 개인별 최종 학위과정의 대학명 및 대학소재지 정보를 이용하여 4년제대를 다시 상위권대(10개 대학), 중상위권

대(30개 대학), 중위권대(40개 대학), 기타 4년제대로 재분류하였다.⁹⁾ 이러한 4년제대의 재분류 과정에는 대학별 입학생의 대입성적 자료(진학사, 1995학년도)를 활용하였다.¹⁰⁾

〈Table 2〉 Academic Credential Classifications

Academic Credentials (7 Classifications)	Observations	Percentage (%)
Middle School Graduates or Below	3,309	33.1
High School Graduates	3,629	36.3
2-Year College Graduates	1,039	10.4
Other 4-Year University Graduates	1,148	11.5
Middle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40 Universities)	311	3.1
Middle-High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30 Universities)	386	3.9
High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10 Universities)	175	1.8
Total	9,997	100

Note: Average CSAT achievement scores of enrolled students are used to classify the rankings of 4-year universities (as of year 1995).

Source: KLIPS 4-7th waves.

- 8) 졸업생뿐 아니라 수료생, 재학생, 휴학생도 포함된다.
- 9) 단, 최종 학위과정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은 고려하지 않으며,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다시 2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4년제 대학 정보를 사용하였다.
- 10) 진학사의 각 대학 학과별 수능평균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학별 입학생의 평균 대입성적을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양대, 카이스트(가나다 순)의 총 10개 대학교를, 중상위권 대학에는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교대,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교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교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의국어대, 한국체육대, 항공대, 한동대, 홍익대의 30개 대학교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위권 대학에는 카톨릭대(구, 성심여대), 강원대, 경기대, 경상대, 경원대, 경희대(수원캠퍼스), 계명대, 고려대(세종캠퍼스), 공주교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단국대(천안캠퍼스), 대전대, 덕성여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대, 상명대(구, 상명여대), 서울산업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울산대, 인제대, 인천대, 장로회신학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북대, 한국외대(용인캠퍼스), 한국해양대, 한림대, 한밭대, 한성대, 한양대(안산캠퍼스)의 40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4년제 대학들은 ‘기타 4년제대’에 포함되었다. 한편, 진학사의 수능평균 데이터에서 누락된 일부 대학의 경우,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기초하여 임의 배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임금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만족률 및 차별적 처우 인지의 추정에 있어 학력수준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를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 만족도 수준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인지의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월평균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 관련 자료를 경제적 지위에 관한 대리변수로 활용하기로 한다. 표본 내에서 현재 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 평균값은 174.2만원이며 그 표준편차는 200.1만원이다. 회귀분석에서는 이를 로그 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혹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해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종사상 지위별로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3%, 6.9%, 8.1%, 25.2%, 7.5%이다.

이 외에 ‘여성’ 변수는 개인의 성별에 따라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으로 설정하였으며, ‘신장’ 변수는 각 개인의 키 높이(cm)를, ‘나이’ 변수는 만 나이를 나타낸다. ‘거주지’ 변수는 강원도(1), 영남권(2), 호남권(3), 충청권(4), 경인권(5), 서울시(6)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 거주자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31.1%, 10.0%, 8.9%, 26.0%, 22.2%이다. 본 변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전국 광역시(도)로 제공된 가구별 거주지역 정보를 총 6개의 거주 단위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개인별 ‘출신지역’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 14세 성장지’ 역시 설명변수의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동일하게 강원도(1), 영남권(2), 호남권(3), 충청권(4), 경인권(5), 서울시(6)의 6개 단위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출신지역’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34.3%, 19.3%, 13.8%, 13.7%, 15.3%이다.

강건성 점검 차원에서 활용된 추가적인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 상태’에서는 미혼인 경우(25.2%),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64.7%), 이혼/별거/사별 등의 사유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10.1%)로 구분하였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출산 경험 여부를 활용하였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보통 사람과 비교한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각각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장애 여부에 있어서는 시각, 청각, 언어 등 감각기관 상의 장애 여부와 걷기, 계단오르기, 운반하기 등 신체활동 상의 장애 여부를 각각 활용하였다. ‘종교’ 관련 변수는 종교가 없는 경우, 불교, 개신교, 천주교 및 기타 종교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지면

관계 상 <Table 1>에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일자리의 특성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하여 주당 정규 근로시간, 초과근로 여부, 성과급제 도입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산업 더미 등의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¹¹⁾

III. 학력수준별 만족률 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효과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와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 각각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 우선 <Table 3>의 좌편에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를 각 학력수준(7단계)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유효응답자 9,948명 가운데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로 3,095명에 이르렀다. 학력수준에 따라 만족자 비중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결과, 상위권대 출신들의 만족자 비중이 54.0%로 과반을 넘어선 반면, 고졸과 전문대졸은 각각 28.8%와 35.1%로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자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자리만족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Table 3>의 우편 참조).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일자리만족도 조사에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일자리가 없는 이들(주로 청년, 주부 혹은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설문의 유효 응답자는 전체 표본 9,997명 중 약 절반 수준인 5,46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유효 응답자 중 1,255명만이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하여 전반적인 만족자의 비중은 단 23.0%에 그쳤다. 그러나, 역시 학력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부각되었다. 상위권 대학 출신들의 일자리 만족자 비중은 47.0%로 거의 과반에 이른 반면, 고졸과 전문대졸은 각기 19.7%와 26.8%로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각 4년제 대학 졸업자 집단은 모두 40% 이상의 만족자 비중을 보여 전문대졸 및 고졸의 만족자 비중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31.1%)과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 비율(23.0%)을 직접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11) 종사하는 산업은 농수산 및 광업, 제조 및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비율이 일자리에 대한 만족 비율을 8%p가량 앞서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를 넘어서는 매우 광범위한 요소들이 반영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3〉 Satisfaction Report Statistics by Academic Credential Groups

(Unit: Person, %)

Academic Credentials (7 Classifications)	Overall Life Satisfaction		Total	Workplace Satisfaction		Total
	No (0)	Yes (1)		No (0)	Yes (1)	
Middle School Graduates or Below	2,532 (76.9)	760 (23.1)	3,292 (100.0)	1,392 (89.0)	172 (11.0)	1,564 (100.0)
High School Graduates	2,567 (71.2)	1,039 (28.8)	3,606 (100.0)	1,630 (80.3)	401 (19.7)	2,031 (100.0)
2-Year College Graduates	674 (64.9)	364 (35.1)	1,038 (100.0)	448 (73.2)	164 (26.8)	612 (100.0)
Other 4-Year University Graduates	615 (53.8)	528 (46.2)	1,143 (100.0)	403 (60.2)	267 (39.9)	670 (100.0)
Middle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40 Universities)	179 (57.6)	132 (42.4)	311 (100.0)	120 (57.4)	89 (42.6)	209 (100.0)
Middle-High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30 Universities)	206 (53.7)	178 (46.4)	384 (100.0)	152 (58.5)	108 (41.5)	260 (100.0)
High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10 Universities)	80 (46.0)	94 (54.0)	174 (100.0)	61 (53.0)	54 (47.0)	115 (100.0)
Total	6,853 (68.9)	3,095 (31.1)	9,948 (100.0)	4,206 (77.0)	1,255 (23.0)	5,461 (100.0)

Source: KLIPS 7th wave.

1.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분석

다음으로 학력수준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본 논문에서는 Logit regression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 Overall Life Satisfaction Rates by Academic Credentials

Dependent Variable: Overall Life Satisfaction (Logit Analysis)	Model 1 (Full Observations)	Model 2 (Income Earners Only)		Model 3 (Income Earners Only)		Model 4 (Income Earners Only)		Model 5 (Additional Variables Controlled)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Academic Credentials (Base: 2-year College)	Middle School or Below	-0.700 *** [0.090]	-14.0	-0.942 *** [0.130]	-18.5	-0.687 *** [0.133]	-13.8	-0.588 *** [0.134]	-11.9
	High School	-0.287 *** [0.077]	-5.9	-0.379 *** [0.105]	-8.1	-0.347 *** [0.107]	-7.3	-0.296 *** [0.107]	-6.2
	Other 4-year Univ.	0.480 *** [0.089]	10.8	0.526 *** [0.119]	12.1	0.441 *** [0.121]	10.0	0.449 *** [0.122]	10.1
	Middle Univ.	0.330 ** [0.134]	7.3	0.472 *** [0.168]	10.9	0.304 * [0.171]	6.8	0.294 * [0.171]	6.6
	Middle-High Univ.	0.523 *** [0.124]	11.9	0.65 *** [0.160]	15.3	0.473 *** [0.163]	10.9	0.460 *** [0.164]	10.5
	High Univ.	0.898 *** [0.169]	21.2	1.089 *** [0.216]	26.2	0.839 *** [0.221]	19.9	0.855 *** [0.222]	20.3
Monthly Wage (Log)						0.635 *** [0.055]	13.7	0.589 *** [0.057]	12.6
Job Status (Base: Regular Job)	Temporary Job					-0.332 ** [0.140]	-6.7	-0.380 ** [0.170]	-7.4
	Daily Worker					-0.749 *** [0.148]	-14.0	-0.664 *** [0.160]	-12.4
	Self-Employed					-0.21 ** [0.082]	-4.4	-0.150 * [0.089]	-3.1

Marital Status (Base: Single)	Married								-0.088 [0.204]	-1.8	
	Separated/Divorced/Widowed								-0.536** [0.256]	-10.2	
Child Delivery	(dummy)								-0.317*** [0.129]	-6.9	
Current Health Status									0.457*** [0.058]	9.6	
Religion Dummies									Controlled		
Female		0.213*** [0.071]	4.5	0.041 [0.104]	0.9	0.302*** [0.109]	6.6	0.287*** [0.109]	6.2	0.367*** [0.133]	7.9
Height (cm)		0.011** [0.004]	0.2	0.009[*] [0.006]	0.2	0.005 [0.006]	0.1	0.006 [0.007]	0.1	0.007 [0.008]	0.2
Age		0.006*** [0.002]	0.1	0.012*** [0.003]	0.3	0.010*** [0.003]	0.2	0.012*** [0.004]	0.3	0.020*** [0.005]	0.4
Residence at 14 Years Old Controlled	Yes			Yes		Yes		Yes		Yes	
Current Household Residence Controlled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3.042*** [0.798]		-2.831** [1.136]		-5.406*** [1.188]		-5.294*** [1.201]		-7.007*** [1.454]	
Life Satisfaction Rate (based on the mean of each variable)			30.2		31.8		31.3		31.1		30.1
Observations		9948		4961		4961		4961		3796	

Note: 1) * denotes 10% of significance, ** denotes 5% of significance and *** denotes 1% of significance.

2) [*] denotes 10% of significance in a one-tailed test.

3) Marginal effec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stimated marginal effects.

〈Table 4〉에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제시한 ‘한계효과’는 설명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할 가능성, 즉 ‘만족률’의 증감을 표시한다. 설명변수가 더미변수인 경우에는 해당 변수가 1일 때의 만족률 증감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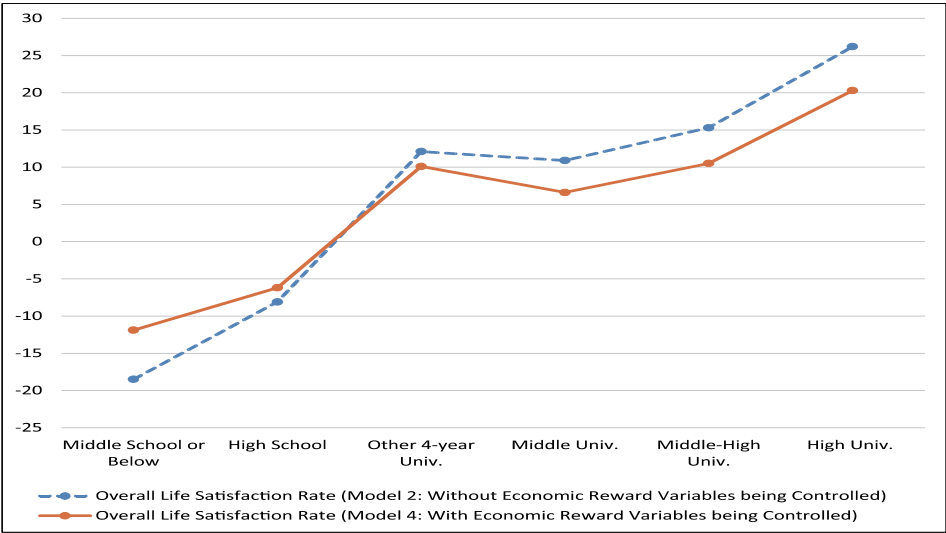
우선, 모형 1은 성별, 신장, 나이, 거주지, 만 14세 성장지 등 일반적인 개인별 특성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의 하단에 표기된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의 평균치를 지닌 응답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률은 30.2%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 만족률 효과는 전문대 졸업자를 기준으로 삼아 표기하였다.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만족률이 각각 14.0%p와 5.9%p만큼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인 4년제대 졸업자(중상위권대, 중위권대, 기타 4년제대)는 대체로 (전문대졸에 비해) 10%p가량 만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위권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만족률이 무려 21.2%p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국내 상위권대 졸업자들의 만족 수준이 여타 4년제대 출신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존 연구들이 임금 프리미엄 등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의 ‘학벌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만족률 효과 역시 경제적 보상 측면의 효과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하자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단지 경제적 보상 즉 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상의 만족률 효과는 기존 연구들이 밝힌 ‘임금 프리미엄’의 또 다른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종사상 지위 등 경제적 보상 변수를 통제한 뒤의 분석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기로 한다.

모형 2, 3, 4는 각각 전체응답자 중 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모형 2는 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종사상 지위를 통제하기 전의 만족률 효과를 표시하고 있으며, 모형 3은 여기에 월평균 소득을 추가 통제한 결과이다. 모형 4는 월평균 소득과 종사상 지위를 모두 통제한 뒤의 분석결과이다. 이렇게 세 모형의 분석결과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보상 변수를 통제하기 전과 이를 통제한 후의 만족률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체 분석대상 관측수는 9,948명(모형 1)에서 4,961명(모형 2, 3, 4)으로 약 절반가량 축소되었다. 이는 소득이나 일자리가 없는 이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¹²⁾

만약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효과가 상당부분 학력수준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면, 경제적 보상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을 때 학력수준별 만족률 효과는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2로부터 모형 3, 4로 통제변수를 차례로 추가함에 따라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효과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모형 2(경제적 보상 변수 통제 전)와 모형 4(경제적 보상 변수 통제 후)를 직접 비교한 뒤, 그 결과를 <Figure 1>에 요약 정리하였다. 경제적 보상 변수를 통제한 뒤 모든 학력수준 단계에서 만족률 효과가 축소된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졸이하와 상위권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만족률 효과의 축소폭이 대략 6~7%p에 이르렀다.

<Figure 1> Overall Life Satisfaction Rates by Academic Credentials
(Base: 2-year College)



- Note: 1) The lines indicate the relative increase/decrease in life satisfaction rate of each academic credential group compared to the life satisfaction rate of the 2-year college graduates.
- 2) The chart shows both income earners' relative overall life satisfaction rates without economic reward variables being controlled (Model 2) and those with economic reward variables being controlled (Model 4).

12) 일부 자영업자 중에는 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소득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이들 역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모형 4에서 보듯이,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가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도 학력수준별 만족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견고하게 남아 있다. 중졸 이하와 고졸은 여전히 (전문대졸에 비해) 만족률이 각각 11.9%p와 6.2%p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일반적인 4년제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약 10%p 안팎의 만족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학력수준별 만족률 효과가 소득과 종사상 지위 등의 경제적 보상 측면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고학력(고학벌)에 따른 만족률 상승효과가 한국사회 내에 뚜렷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학벌의 ‘비경제적’ 효과로 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 순서로 교육연한이 증가할수록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학력(학벌)은 교육과정 이수 이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거주환경, 직장의 복리후생, 자아실현 여부, 일과 전공과의 일치도 등 다양한 비금전적 요소들에 있어서 학력(학벌)의 효과가 양산되고, 이러한 효과들이 본 분석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치 내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분석에서 재확인되는 흥미로운 부분은 소위 ‘명문대 효과’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전문대졸 대비) 만족률 상승 효과가 10%p 안팎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위권대 졸업자들에게는 약 20%p 안팎의 매우 높은 만족률 상승효과가 관측되고 있다(모형 4 기준). 또한, 상위권대 더미의 추정계수(0.855)와 다른 4년제 대학 더미변수들(기타 4년제대, 중위권대, 중상위권대)의 추정계수 간의 차별성을 검증해 보면, 각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격차가 뚜렷이 확인된다.¹³⁾ 이러한 결과는 이경희·김태일(2007)과 김진영(2007) 등의 기존 연구들이 임금 상에서의 명문대 프리미엄을 확인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¹⁴⁾ 즉, 상위권대학 출신들이 여타 4년제 대학 출신들에 비해 상당

13) 여기에는 STATA 통계 패키지의 test 명령어를 활용하였으며, 10%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 간 차별성이 검증되었다. 여타 모형(1, 2, 3, 5)에서도 대부분 상위권대 더미의 추정계수와 여타 4년제대 더미의 추정계수 간 차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14) 이경희·김태일(2007)은 노동패널 1~7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순위와 전공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및 그 효과의 성별 격차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데, 상위 1~5위권 대학 출신자들은 30위권 밖의 대학 출신자들에 비해 남성의 경우 17% 정도, 여성의 경우 26~27% 정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영(2007)은 2003년도 졸업생들의 2005년도 노동시장 성과자료(전문대·대학교 졸업생의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직업능력개발원)를 이용하여 수능 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대학 서열 프리미엄을 추정하고자 하였는데, 상위 5~10개교의 임

히 높은 수준의 생활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여부가 ‘행복감’이라는 정서적 측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란 물음에 대한 본 분석의 대답은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입시) 성적 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위권대의 ‘행복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특유의 명문대 진학 경쟁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수능 성적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재수생 비율이 더 높은 우리나라 입시의 기이한 현상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을 제공한다.¹⁵⁾

더불어, 본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보상 변수들의 만족를 효과 역시 추정 가능 하다. 모형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1% 상승하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률이 0.13%p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사상의 지위 중 상용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혹은 고용주)인 경우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6.7%p, 14.0%p, 4.4%p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자영업자(혹은 고용주)들의 만족률이 상용직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영세성을 대변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여타 통제변수들의 만족를 효과를 모형 4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6.2%p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만족률이 높은 것은 현실 만족 성향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남성이 생업 현장에서 보다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여성이 가정 혹은 교우관계에서 보다 만족스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나이가 한 살 증가할수록 만족률이 0.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생활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장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만족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로 만족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

금 프리미엄이 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5) 수능능력시험 원자료(2011학년도)를 살펴보면, 전체 수험생 중 재수생 비율이 21.6%로 나타나는 반면, 최상위 등급인 1등급(수리영역 기준)을 취득한 수험생 중 재수생의 비중은 40.2%에 달한다. 한편, 최하위인 9등급(수리영역 기준)을 취득한 수험생 중 재수생의 비율은 단 12.2%에 그치고 있다.

으로 확인된다.¹⁶⁾

덧붙여,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족 관계, 건강상태 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모형 5 참조). 혼인 상태에서 미혼을 기준으로 할 때, 배우자를 상실(이혼/별거/사별 등)한 경우 만족률이 12.2%p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에 만족률이 오히려 6.9%p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현재의 건강상태(5단위)가 한 단위 개선되는 경우, 만족률은 9.6%p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에 있어서는 개신교인 경우에만 만족률이 7.4%p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5에서 보듯이, 이러한 추가적인 통제 이후에도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효과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⁸⁾

2.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 분석

다음으로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달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현재 직업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따라서 관측치의 총수가 전체 표본 대비 약 55% 수준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학력수준의 상당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인별 특성변수들을 통제한 모형 1에 따르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이 체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확인된다. 각 변수의 평균치에서의 일자리 만족률이 20.3% 수준에 그친 가운데, 중졸이하와 고졸인 경우 일자리 만족률이 (전문대졸 대비) 각각 19.9%p와 7.5%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4년제대, 중위권대, 중상위권대, 상위권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자리 만족률이 (전문대졸 대비) 각각 11.7%p,

16)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것보다 만족률이 각각 무려 18.2%p와 21.6%p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모형 4 기준). 구체적인 추정 수치에 관해서는 저자에게 문의 바란다.

17)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 및 교육 환경 내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입시에 따른 피로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18) 다만, 중졸 이하 및 고졸의 경우 만족률 하락 폭이 다소 완화되는데, 이는 중졸 이하 집단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세가 많은 경우 배우자를 사별하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회귀분석 상에 이러한 혼인 및 건강 상태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킬 경우, 중졸 이하 및 고졸 학력 효과의 추정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Table 5〉 Workplace Satisfaction Rates by Academic Credentials

Dependent Variable: Workplace Satisfaction (Logit Analysis)	Model 1 (Full Observations)	Model 2 (Income Earners Only)	Model 3 (Income Earners Only)	Model 4 (Income Earners Only)	Model 5 (Additional Variables Controlled)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Academic Credentials (Base: 2-year College)	Middle School or Below	-1.485 *** [0.148]	-19.4	-0.933 *** [0.156]	-0.841 *** [0.158]	-0.339 (*) [0.220]
	High School	-0.482 *** [0.113]	-6.8	-0.341 *** [0.120]	-0.296 ** [0.121]	-0.212 (*) [0.149]
	Other 4-year Univ.	0.632 *** [0.124]	12.6	0.544 *** [0.132]	0.532 *** [0.132]	0.220 (*) [0.160]
	Middle Univ.	0.767 *** [0.171]	17.6	0.619 *** [0.182]	0.603 *** [0.182]	0.372 * [0.215]
	Middle-High Univ.	0.784 *** [0.163]	17.2	0.595 *** [0.175]	0.576 *** [0.175]	0.364 * [0.213]
	High Univ.	1.172 *** [0.217]	25.3	0.801 *** [0.230]	0.795 *** [0.230]	0.578 ** [0.290]
Monthly Wage (Log)			1.030 *** [0.067]	1.000 *** [0.069]	1.610 *** [0.125]	
Job Status (Base: Regular Job)	Temporary Job				0.015 [0.156]	0.2 [0.192]
	Daily Worker				-1.025 *** [0.215]	-12.5 [0.312]
	Self-Employed				-0.126 (*) [0.093]	-2.0

Regular Work Hours					-0.020 *** [0.005]	-0.3
Overtime Work (Dummy)					0.029 [0.113]	0.5
Performance-based Pay Scheme (Dummy)					0.286 ** [0.124]	4.9
National Pension Enrolled (Dummy)					0.048 [0.109]	0.8
Industry Dummies					Controlled	
Religion Dummies					Controlled	
Female	0.324 *** [0.112]	5.4	0.456 *** [0.118]	8.0	0.893 *** [0.127]	15.5
Height (cm)	0.006 [0.007]	0.1	0.008 [0.007]	0.1	0.002 [0.008]	0.0
Age	0.015 *** [0.004]	0.2	0.016 *** [0.004]	0.3	0.013 *** [0.004]	0.2
Residence at 14 Years Old Controlled	Yes		Yes		Yes	Yes
Current Household Residence Controlled	Yes		Yes		Yes	Yes
Constant	-3.092 ** [1.244]		-3.575 *** [1.290]		-7.792 *** [1.402]	-8.642 *** [2.090]
Workplace Satisfaction Rate (Based on the Mean of Each Variable)		20.3		21.8		19.9
Observations	5461		4898		4898	2999

Note: 1) * denotes 10% of significance, ** denotes 5% of significance and *** denotes 1% of signific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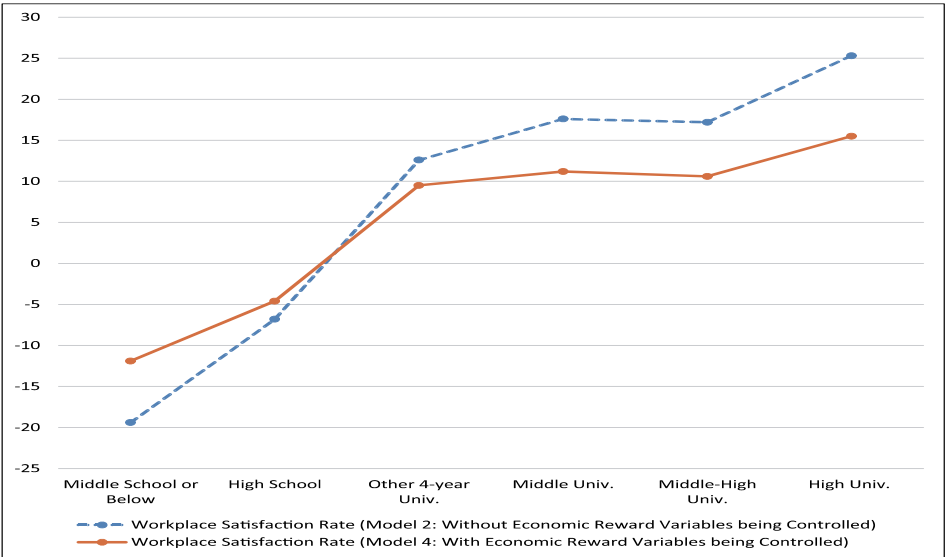
2) [*] denotes 10% of significance in a one-tailed test.

3) Marginal effec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stimated marginal effects.

14.9%p, 15.3%p, 24.6%p만큼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효과가 기존 연구들이 밝힌 바 있는 임금 프리미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는 ‘비경제적’ 만족률 효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형 2, 3, 4에서는 소득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시도한다. 모형 2의 경우 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모형 1과의 동일 분석에 해당하고, 모형 3은 여기에 소득 통제를 추가한 분석이다. 모형 4는 소득과 종사상 지위를 모두 통제한 뒤의 분석결과이다. 관측수는 모형 1에 비하여 약 10%가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일자리는 있으나 소득이 따로 없는 무급가족 종사자 및 소득이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및 고용주) 등이 분석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¹⁹⁾

〈Figure 2〉 Workplace Satisfaction Rates by Academic Credentials
(Base: 2-year College)



Note: 1) The lines indicate the relative increase/decrease in workplace satisfaction rate of each academic credential group compared to the workplace satisfaction rate of the 2-year college graduates.
2) The chart shows both income earners' relative workplace satisfaction rates without economic reward variables being controlled (Model 2) and those with economic reward variables being controlled (Model 4).

19) 또한, 평상시 주된 일자리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인 근로자들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모형 2, 3, 4를 비교해 보면, 통제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률 효과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형 3에서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였을 때, 학력수준별 만족률 효과가 모형 2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으며 모형 4에서 종사상 지위가 추가로 통제되었을 때는 소폭(약 0.5%p 안팎)의 추가 축소가 나타났다. 모형 2와 모형 4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Figure 2>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 그림을 통해 각 학력수준별로 만족률 효과의 축소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졸이하 및 상위권대 졸업자인 경우에는 만족률 효과의 축소폭이 각각 7.5%p와 9.8%p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형 4에서 보듯이, 경제적 보상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학력수준에 따른 일자리 만족률 효과는 상당히 견재하게 남아 있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 측면에서 임금(혹은 사업소득) 및 종사상 지위를 넘어서는 비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암시한다. 여기에는 직장의 복리후생, 안정성, 발전가능성, 근로조건, 자기계발, 전공과의 일치, 직장 내 동료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졸이하와 고졸인 경우 (경제적 보상 측면을 넘어서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이 (전문대졸 대비) 11.9%p와 4.6%p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이 (전문대졸 대비) 약 10%p가량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앞서 전반적인 생활만족률에서 확인한 바 있는 ‘상위권대 프리미엄’이 일자리 만족률에서도 재확인된다. 경제적 보상 측면을 넘어서는 일자리 만족률 상승효과가 (전문대졸 대비) 무려 15.5%p로 여타 4년제 대학의 졸업생들보다 약 5%p만큼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⁰⁾

학력수준 외 여타 변수들의 만족률 효과를 살펴보면, 소득 1% 상승시 약 0.16%p가량의 만족률 상승이 기대되며, 일용직인 경우 (상용직인 경우에 비해) 12.5%p만큼의 만족률 하락이 확인된다. 반면, 예상과는 달리 임시직 여부는 (소득 효과를 통제하는 경우) 일자리 만족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이 무려 14.9%p나 상승하는

20) 다만, 각 4년제 대학 더미변수들의 추정계수 간 차별성을 검정해 본 결과(STATA의 test 명령어 활용),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격차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평균치에서의 일자리 만족률이 단 19.9%에 그친 가운데, 상위권대 졸업의 한계효과가 여타 4년제대 졸업에 비해 5%p 가량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간과할 만한 수준의 격차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김영철 (201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만족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동일 조건에서 강원도, 영남권 및 호남권에서 일하는 경우 (서울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만족률이 각각 36.2%p, 23.0%p, 28.0%p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¹⁾ 수도권의 경쟁적인 일자리 풍토가 저조한 만족률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지역별 산업 특성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추가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일자리 특성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추가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모형 5에 정리하였다. 초과근로 유무나 국민연금 유무는 일자리 만족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성과급제 도입 여부는 4.9%p만큼의 만족률 변동과 연동하였다. 정규 근로시간(주당)이 1시간 늘어나는 경우, 일자리 만족률은 0.3%p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대체로 일자리 특성 변수들이 설명변수에 추가되면서 각 학력수준별 한계효과(절대값)는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앞서 추정한 학력(학벌)의 일자리 만족률 효과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특성은 결국 취업시장에서의 각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다. 학력수준이 우수할 경우, 각 개인은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설명변수군에 보다 많이 포함시킬수록, 각 학력수준의 만족률 개선(하락) 효과가 이들 일자리 특성변수들의 한계효과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각 학력수준별 한계효과 추정치(절대값)는 보다 작게 포착될 수밖에 없다.

IV. 차별적 처우 인지 관련 분석

앞서 우리는 임금 프리미엄 등 경제적 요인을 넘어서는 학력(학벌)의 만족률 상승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만족률 격차의 형성에는 일자리의 질적인 차이, 사회적 관계의 형성, 결혼 및 가정생활의 양태, 자존감이나 차별의식 등 사회심리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절에서는

21) 정확한 추정치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문의바란다.

22) 한편, 개인의 종교 성향은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차별적 처우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학벌 효과’에 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취업과정에서의 차별적 경험, 승진(승급) 단계에서의 차별적 경험,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적 경험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조사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본 분석에서는 이를 ‘실제 차별 피해 경험’이 아닌 ‘차별적 처우 인지’ 정도로 해석한다. 설문 응답에 관한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학력(학벌)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Table 6〉은 학력수준(7단계) 별 차별적 처우 인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의 차별적 처우 인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유효응답자 7,400명 중 1,356명(18.3%)이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전문대 출신의 경우 19.1%가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하여 고졸 출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별적 처우의 인지율이 체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위권 대학 출신 중 차별적 처우 인지자의 비중은 단 7.3%에 그쳤다.

다음으로, 승진이나 승급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유효응답자 6,540명 중 373명만이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해당 경험자의 비중이 단 5.7%에 머물렀다. 고졸과 전문대 출신 중에는 약 7%가 승진(승급) 과정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이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²³⁾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 역시 학력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전체 유효응답자 9,315명 중 726명(7.8%)이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중졸 이하와 고졸 출신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각각 11.0%와 7.1%에 이른 반면, 중상위권과 상위권 대학 출신 중에는 각각 4.4%와 1.8%만이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학력수준별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상의 응답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현장 및 일상적인 사회생활 가운데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23) 표본의 수가 크지 않아, 차별적 처우 경험자의 비중이 각 학력수준별 차별경험자의 수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양지할 필요가 있다.

각종 여론조사(『교육여론조사』,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등)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우리 사회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답하였던 것과 상응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Table 6〉 Discrimination Experience Statistics by Academic Credential Groups

(Unit: Person, %)

Academic Credentials (7 Classifications)	Discrimination in Getting a New Job		Total	Discrimination in Promotion		Total	Discrimination in Social Life		Total
	No (0)	Yes (1)		No (0)	Yes (1)		No (0)	Yes (1)	
Middle School Graduates or Below	1,709 (77.1)	509 (23.0)	2,218 (100.0)	1,745 (95.9)	74 (4.1)	1,819 (100.0)	2,705 (89.0)	335 (11.0)	3,040 (100.0)
High School Graduates	2,191 (81.3)	504 (18.7)	2,695 (100.0)	2,260 (93.1)	167 (6.9)	2,427 (100.0)	3,114 (92.9)	239 (7.1)	3,353 (100.0)
2-Year College Graduates	704 (80.9)	166 (19.1)	870 (100.0)	730 (92.8)	57 (7.2)	787 (100.0)	926 (93.6)	63 (6.4)	989 (100.0)
Other 4-Year University Graduates	765 (87.6)	108 (12.4)	873 (100.0)	755 (94.6)	43 (5.4)	798 (100.0)	1,052 (95.0)	55 (5.0)	1,107 (100.0)
Middle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40 Universities)	237 (88.4)	31 (11.6)	268 (100.0)	240 (97.2)	7 (2.8)	247 (100.0)	279 (94.9)	15 (5.1)	294 (100.0)
Middle-High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30 Universities)	299 (91.7)	27 (8.3)	326 (100.0)	300 (93.8)	20 (6.3)	320 (100.0)	349 (95.6)	16 (4.4)	365 (100.0)
High Ranking University Graduates (10 Universities)	139 (92.7)	11 (7.3)	150 (100.0)	137 (96.5)	5 (3.5)	142 (100.0)	164 (98.2)	3 (1.8)	167 (100.0)
Total	6,044 (81.7)	1,356 (18.3)	7,400 (100.0)	6,167 (94.3)	373 (5.7)	6,540 (100.0)	8,589 (92.2)	726 (7.8)	9,315 (100.0)

Source: KLIPS 7th wave.

1. 취업관련 차별적 처우 인지 분석

취업관련 차별적 처우 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였다. 모형 1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형 2와 3은 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모형 1에 따르면, 학력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차별적 경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각 변수의 평균치를 지닌 경우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16.8%로 나타난

〈Table 7〉 Analysis on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Getting a New Job

Dependent Variable: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Getting a New Job (Logit Analysis)	Model 1 (Full Observations)		Model 2 (Income Earners Only)		Model 3 (Income Earners Only)		Model 4 (Additional Variables Controlled)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Academic Credententials (Base: 2-year College)	Middle School or Below	0.545 *** [0.121]	8.2	0.682 *** [0.155]	10.5	0.448 *** [0.161]	0.463 *** [0.164]	6.5
	High School	0.135 [*] [0.104]	1.9	0.201 [*] [0.133]	2.8	0.158 [0.135]	0.220 [*] [0.138]	2.9
	Other 4-year Univ.	-0.433 *** [0.137]	-5.4	-0.452 *** [0.172]	-5.5	-0.416 ** [0.174]	-0.395 ** [0.176]	-4.6
	Middle Univ.	-0.551 *** [0.213]	-6.5	-0.723 *** [0.273]	-7.9	-0.581 ** [0.277]	-0.578 ** [0.278]	-6.2
	Middle-High Univ. High Univ.	-0.724 *** [0.223] -0.701 ** [0.330]	-8.1 -7.8	-1.329 *** [0.345] -0.838 ** [0.411]	-12.1 -8.7	-1.154 *** [0.348] -0.570 [*] [0.416]	-1.110 *** [0.349] -0.551 [*] [0.418]	-10.1 -5.9
Monthly Wage (Log)						-0.467 *** [0.073]	-0.374 *** [0.076]	-4.8
Job Status (Base: Regular Job)	Temporary Job					0.437 *** [0.136]	0.447 *** [0.137]	6.6
	Daily Worker					0.420 *** [0.126]	0.407 *** [0.128]	5.9
	Self-Employed					-0.649 *** [0.123]	-0.659 *** [0.124]	-7.5
Marital Status (Base: Single)	Married						-0.501 *** [0.126]	-7.0
	Separated/Divorced /Widowed						-0.186 [0.191]	-2.3

Overall Health Status					-0.062 [0.062]	-0.8
Sensory System Disability (Dummy)					0.934 ** [0.433]	16.1
Difficulties in Physical Activities (Dummy)					0.207 [0.262]	2.9
Religion Dummies					Controlled	
Female					-0.330 ** [0.136]	-4.1
Height (cm)					-0.010 [*] [0.008]	-0.1
Age					0.001 [0.005]	0.0
Residence at 14 Years Old Controlled	Yes		Yes		Yes	Yes
Current Household Residence Controlled	Yes		Yes		Yes	Yes
Constant	1.387 ** [1.089]		1.623 [1.430]		2.938 ** [1.469]	2.197 ** [1.497]
Discrimination Rate (Based on the Mean of Each Variable)	16.8		16.4		15.4	15.3
Observations	7400		4502		4502	4500

Note: 1) * denotes 10% of significance, ** denotes 5% of significance and *** denotes 1% of significance.
2) [*] denotes 10% of significance in a one-tailed test.
3) Marginal effec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stimated marginal effects.

가운데, 전문대졸을 기준으로 하여 고졸 및 중졸 이하는 각각 1.9%p와 8.2%p만큼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추가로 상승하였다. 반면, 기타 4년제대, 중위권대, 중상위권대 및 상위권대 졸업자는 각각 5.4%p, 6.5%p, 8.1%p, 7.8%p만큼의 차별 인지율의 하락이 나타났다.

한편, 각 응답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과대 혹은 과소로 인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현재 임시 혹은 일용직에 처해 있을 경우, 자신의 현 상황을 과거 차별적 처우의 탓으로 돌려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현재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고 보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면, 과거의 차별적 처우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거나 실제 있었다라도 이를 망각해 버릴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편의(bias)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응답자의 경제적 현황 즉 소득수준 및 종사상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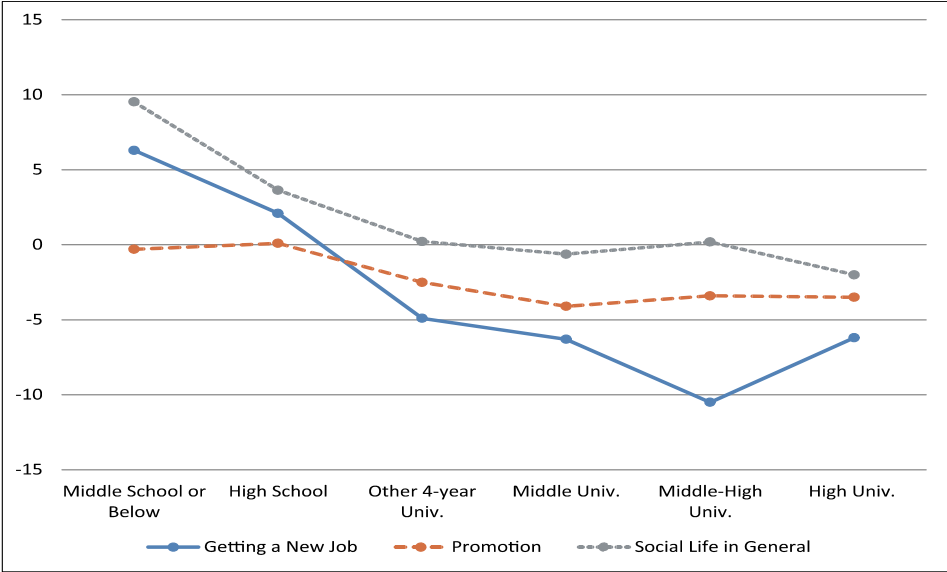
모형 2와 모형 3은 (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기 전과 후의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한다. 현재 소득이 있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측수는 7,400명(모형 1)에서 4,502명(모형 2, 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와 모형 3을 상호 비교해 보면, 경제적 상황 변수를 통제한 뒤에 차별인지율 효과가 모든 학력수준 단계에서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더라도 학력수준별 차별 인지율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지할 가능성은 체계적으로 하락한다(〈Figure 3〉 참조). 예를 들어, 모형 3에서 중졸 이하 (혹은 고졸) 더미의 추정계수와 여타 학력수준 더미의 추정계수 간의 차별성을 검증해 보면, 모두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그 차이가 확인된다.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생들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²⁴⁾ 각 4년제 대학 더미변수들의 추정계수 간 차별성을 검증해 보아도 통계적

24) 오히려 상위권대 졸업생들의 차별인지율이 중상위권대 졸업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차별적 처우 경험자의 표본 수가 크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현재 중상위권대와 상위권대 출신자 중 차별적 처우 경험자의 수는 각각 27명과 11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렇게 소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해당 표본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각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표 6 참조). 실제로 관측치의 규모가 보다 큰 모형 1의 경우에는 중상위권대와 상위권대 출신자 사이의 차별인지를 역전 현상은 나타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Figure 3〉 Discrimination Experience Rates by Academic Credentials
(Base: 2-year College)



Note: 1) The lines indicate the relative increase/decrease in discrimination experience rate of each academic credential group compared to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rate of the 2-year college graduates.
2) The chart shows income earners' relative discrimination experience rates by academic credential groups with economic reward variables such as monthly wage and job status being controlled (Model 3 in Tables 7/8/9).

덧붙여 여타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차별인지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직인 경우 차별인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취업과정에서 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본 분석의 경우에는 여성의 차별인지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의 직업적 특성(단순 혹은 저숙련 일자리)에 기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²⁵⁾ 덧붙여, 신장이 클수록 취업과정에

나지 않고 있다.

25) 실제로 동일 분석을 대학 졸업자에 한정지어 실행할 경우 성별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의 차별인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 취업시장에서 외모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⁶⁾ 흥미롭게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취업과정에서 차별적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⁷⁾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는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한 뒤 그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혼인 상태와 감각기관의 장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해) 취업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 장애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무려 16.1%p나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교 성향이나 일반적인 건강상태는 차별적 처우 인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추가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학력수준별 차별적 처우 인지 효과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 승진 및 승급 관련 차별적 처우 인지 분석

다음으로 학력수준이 취업 이후의 직장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승진 및 승급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 경험에 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Table 8〉에 요약하였다. 우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추정치들 간의 어떠한 일관성도 포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중졸이하의 경우 승진(승급)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전문대졸에 비해 오히려 2.8%p 더 낮게 나타났다. 중상위권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그 추정치 크기가 모호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승진(승급) 심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학력수준이 크게 낮은 경우, 일용직에 근무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애초에 승진(승급)의 대상자가 아니다. 승진(승급) 심사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매우 협소한 것이다. 더불어, 소득이 높을수록 직장생활 가운데 승진(승급) 심사를 보다 자

26) 단, 모형 3에서의 본 추정치는 양측검증이 아닌 단측검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판정된다.

27) 반면, 지역차별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출신지역의 대리변수인 ‘만 14세 성장지’의 추정계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지역별 격차가 전혀 포착되지 아니하였다.

(Table 8) Analysis on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Promotion

Dependent Variable: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Promotion (Logit Analysis)	Model 1 (Full Observations)		Model 2 (Income Earners Only)		Model 3 (Income Earners Only)		Model 4 (Additional Variables Controlled)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Academic Credentials (Base: 2-year College)	Middle School or Below	-0.619 *** [0.215]	-2.8	-0.305 [0.256]	-1.5	-0.066 [0.263]	-0.048 [0.265]	-0.2
	High School	-0.067 [0.166]	-0.3	-0.049 [0.200]	-0.3	0.020 [0.201]	0.021 [0.202]	0.1
	Other 4-year Univ.	-0.359 * [0.211]	-1.6	-0.449 * [0.252]	-2.1	-0.573 ** [0.254]	-0.626 ** [0.256]	-2.6
	Middle Univ.	-1.035 ** [0.409]	-3.5	-1.156 ** [0.483]	-4.0	-1.327 *** [0.486]	-1.348 *** [0.487]	-4.0
	Middle-High Univ.	-0.241 [0.275]	-1.1	-0.752 * [0.384]	-3.1	-0.954 ** [0.387]	-1.013 *** [0.389]	-3.4
	High Univ.	-0.901 * [0.481]	-3.2	-0.864 [*] [0.542]	-3.3	-1.048 * [0.546]	-1.161 ** [0.554]	-3.6
Monthly Wage (Log)						0.459 *** [0.123]	0.494 *** [0.127]	2.4
Job Status (Base: Regular Job)	Temporary Job					0.350 [*] [0.249]	0.378 [*] [0.251]	2.2
	Daily Worker					-0.487 * [0.295]	-0.442 [*] [0.297]	-1.9
	Self-Employed					-0.719 *** [0.200]	-0.724 *** [0.202]	-3.0
Marital Status (Base: Single)	Married						-0.039 [0.205]	-0.2
	Separated/Divorced /Widowed						-0.732 * [0.424]	-2.7

Overall Health Status							0.099 (0.104)	0.5
Sensory System Disability (Dummy)							2.094 *** (0.494)	25.4
Difficulties in Physical Activities (Dummy)							0.552 (0.454)	3.5
Religion Dummies							Controlled	
Female	-0.494 *** (0.170)	-2.5	-0.421 * (0.215)	-2.2	-0.296 [*] (0.223)	-1.5	-0.221 (0.227)	-1.1
Height (cm)	-0.014 [*] (0.010)	-0.1	-0.016 (0.013)	-0.1	-0.017 [*] (0.013)	-0.1	-0.016 (0.013)	-0.1
Age	-0.001 (0.005)	0.0	-0.006 (0.007)	0.0	-0.002 (0.008)	0.0	0.001 (0.009)	0.0
Residence at 14 Years Old Controlled	Yes		Yes		Yes		Yes	
Current Household Residence Controlled	Yes		Yes		Yes		Yes	
Constant	0.337 (1.856)		0.915 (2.275)		-1.312 (2.385)		-2.047 (2.449)	
Discrimination Rate (Based on the Mean of Each Variable)		5.3		5.7		5.4		5.2
Observations	6540		4059		4059		4057	

Note: 1) * denotes 10% of significance, ** denotes 5% of significance and *** denotes 1% of significance.

2) [*] denotes 10% of significance in a one-tailed test.

3) Marginal effec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stimated marginal effects.

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예를 들어, 대기업)은 승진(승급) 단계가 보다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자영업자(혹은 고용주)인 경우 당연히 승진(승급)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진(승급)에서의 차별적 처우 효과를 학력수준별로 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형 2와 모형 3은 각각 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를 통제하기 전과 후의 분석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모형 3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승진(승급)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보다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용직이나 자영업자인 경우(상용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 확인된다.

모형 3에서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를 통제한 뒤의 각 학력수준별 차별인지율 효과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및 고졸인 경우 전문대 졸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에는(전문대졸에 비해)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²⁸⁾ 또한, 기타 4년제대 졸업자의 경우(전문대졸에 비해)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단 2.5%p만 하락하는데 반해, 그 상위단계 대학의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약 3.5~4.0%p가량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 하락이 관측되고 있어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들 간에도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⁹⁾ 종합하자면, 중졸 이하, 고졸 및 전문대졸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가능한 한 4년제 대학을 나올수록 승진(승급)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게 될 확률은 보다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Figure 3〉 참조).

한편, 모형 4에서는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승진(승급) 시의 차별적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인 상태, 건강상태, 장애 여부, 종교 성향 등을 추가로 통제하여 추정해 보았다. 감각기관의 장애 여부가 승진(승급)에서의 차별경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력수준별 추정계수는 추가적인 변수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 이에 중졸 이하(혹은 고졸) 더미의 추정계수와 여타 4년제 대학 더미의 추정계수 간의 차별성을 검증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10%)에서의 차이가 입증되고 있다.

29) 한편, 승진(승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응답자의 수가 크지 않아 해당 표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추정치의 크기가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다(표 6 참조). 또한, 각 4년제 대학 더미 변수들의 추정계수 간의 차별성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able 9〉 Analysis on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Social Life in General

Dependent Variable: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Social Life (Logit Analysis)	Model 1 (Full Observations)		Model 2 (Income Earners Only)		Model 3 (Income Earners Only)		Model 4 (Additional Variables Controlled)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s	
Academic Credententials (Base: 2-year College)	Middle School or Below	0.574 *** [0.163]	4.0	1.276 *** [0.229]	10.9	1.157 *** [0.233]	9.5	1.120 *** [0.237]	9.0
	High School	0.152 [0.150]	1.0	0.567 *** [0.207]	3.9	0.536 *** [0.208]	3.6	0.552 *** [0.210]	3.7
	Other 4-year Univ.	-0.276 (*) [0.192]	-1.6	0.001 [0.256]	0.0	0.034 [0.257]	0.2	0.035 [0.258]	0.2
	Middle Univ.	-0.220 [0.298]	-1.3	-0.163 [0.388]	-1.0	-0.102 [0.390]	-0.6	-0.121 [0.390]	-0.7
	Middle-High Univ.	-0.312 [0.291]	-1.7	-0.053 [0.375]	-0.3	0.029 [0.378]	0.2	0.043 [0.379]	0.3
	High Univ.	-1.154 * [0.601]	-4.6	-0.455 [0.619]	-2.4	-0.365 [0.621]	-2.0	-0.370 [0.622]	-2.0
Monthly Wage (Log)						-0.147 [*] [0.090]	-0.9	-0.055 [0.095]	-0.3
Job Status (Base: Regular Job)	Temporary Job					0.089 [0.200]	0.6	0.088 [0.202]	0.6
	Daily Worker					0.448 *** [0.169]	3.4	0.438 *** [0.171]	3.2
	Self-Employed					0.043 [0.142]	0.3	0.010 [0.144]	0.1
Marital Status (Base: Single)	Married							-0.190 [0.171]	-1.2
	Separated/Divorced /Widowed							0.133 [0.247]	0.9

Overall Health Status					-0.133 [*] [0.083]	-0.8
Sensory System Disability (Dummy)					1.407 *** [0.403]	15.8
Difficulties in Physical Activities (Dummy)					0.234 [0.293]	1.6
Religion Dummies					Controlled	
Female					-0.124 [0.176]	-0.8
Height (cm)					-0.013 [0.011]	-0.1
Age					-0.024 *** [0.007]	-0.1
Residence at 14 Years Old						
Controlled	Yes		Yes	Yes	Yes	Yes
Current Household Residence						
Controlled	Yes		Yes	Yes	Yes	Yes
Constant						
	-0.016 [1.358]		0.532 [1.869]	1.070 [1.895]	0.752 [1.948]	
Discrimination Rate (Based on the Mean of Each Variable)						
Observations	9315	6.7	4816	4816		5.2

Note : 1) * denotes 10% of significance, ** denotes 5% of significance and *** denotes 1% of significance.
2) [*] denotes 10% of significance in a one-tailed test.
3) Marginal effec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stimated marginal effects.

3.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 분석

마지막으로,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측면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에 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Table 9>의 모형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수들의 평균치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6.7%에 이르는 가운데, 중졸 이하인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무려 4.0%p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권대 졸업자인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4.6%p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졸이하인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역시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가 차별적 처우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임시직 혹은 일용직인 경우 실제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열등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자신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제로 소득이 크게 낮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사회적 차별 가운데 놓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모두 배제하는 차원에서 모형 3에서는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학력수준별 차별인지율 효과를 추정한다. 동시에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모형 2에서는 소득과 종사상의 지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일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모형 3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상한 바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지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인 경우 해당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학력수준별 차별인지율 효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들 사이의 뚜렷한 격차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중졸 이하 혹은 고졸인 경우 사회생활 가운데 차별적 처우를 인지할 확률이 (전문대졸에 비해) 무려 9.5%p와 3.6%p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참조).³⁰⁾ 즉, 유사한 소득수준 및 종사상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에서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

30) 중졸 이하 더미의 추정계수와 여타 학력수준 더미의 추정계수 간 차별성을 검증해 보면, 모두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그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이 크게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역시 모형 4를 통하여, 차별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해 보았으나 학력수준별 추정계수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생활 상의 주요 세 영역에 관한 차별적 처우 경험을 분석해 보았다. 각 영역에 대해 전체 유효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모형 1)와 함께 유소득자에 한정하여 경제적 지위 변수들을 통제하기 전(모형 2)과 후(모형 3)의 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차별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모형 4)에서의 분석결과 역시 제시하였다. 〈Figure 3〉에는 소득수준 및 종사상의 지위를 모두 통제한 뒤의 학력수준별 차별인지율 효과(모형 3)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영역에서의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졸이하 혹은 고졸인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각 영역별 차별적 처우 인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별적 처우에 관한 이상의 인지율 격차는 생활 및 일자리에 대한 만족를 차이로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차별을 받으며 산다고 인식한다면, 실제 차별 발생 유무를 떠나 심리적 차원에서 만족스러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V. 결 론

학력 혹은 출신대학에 따라 노동시장 내 금전적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선행연구들도 익히 구체적으로 논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력(학벌) 효과가 금전적 성과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즉, 임금 프리미엄 및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 여부에 있어서도 학력 및 출신대학의 서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사회 내 각 개인의 진정한 성공(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력(학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내의 만연한 입시경쟁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통제하더라도 만족도 측면에서의 학력(학벌)에 따른 비경제적 효과가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차별적 처

우에 대한 경험적 응답들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현상이 실제적으로 뒷받침 되었다.

더욱이 임금 측면에서 지적된 바 있던 소위 ‘명문대 프리미엄’이 생활 전반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뚜렷이 재확인되었다. 이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국내 상위권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명한’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성적우수 수험생들의 광범위한 재수현상, 대학 내 우수 장학생들의 상위권대학 편입 풍토, 사교육 내 강화학습(reinforcement study) 성향 등 국내 입시에서는 여타 선진국에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특이 현상이 다수 존재한다.³¹⁾ 본 연구에서 드러난 만족도 측면에서의 상위권대 프리미엄은 이러한 특이 현상에 대한 배경적 원인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의 과도한 고학력(고학벌) 추구 성향이 마냥 ‘허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시사교육 자제, 선행학습 자제, 불필요한 재수 자제 등을 외치더라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따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과열 입시경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한다면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 진단 및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고졸 인력들의 노동시장 내 성공가능성 증진, 학력(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현저한 개선, 경직된 대학 간 서열구조의 중장기적인 완화 노력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첫째, 보다 정교한 학력(학벌) 효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사회경제적 배경을 적절히 통제한 상태에서의 만족률 효과 추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수준의 결정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 형성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력수준이 높아질 때 임금 외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수효과가 창출된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결혼 만족도, 가족 및 친지관계 형성, 자아의 실현, 직업적 안정성, 교우관계, 사회적 인정, 심리적 자긍심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할 수 있다. 이에 임금 프리미엄을 넘어선 만족도 프리미엄의 구체적인 실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요인분해 혹은 경로탐색 등의 다양한 실증적 분석을 요구한다. 셋째, 본 논문의 주요한 분석대상은 대부분 2000년대 이전

31) ‘강화학습(reinforcement study)’이란 ‘보충학습(remedial study)’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사교육 등 교육투자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입학했던 세대이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는 학력수준에 따른 만족도 프리미엄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최신자료를 활용한 추가 분석이 요청된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김영철, “연줄’인가, ‘연결’인가? 인적 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4권 3호, 2012.
(Translated in English) Kim, Young-Chul, “Nepotism or Network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Networks in the Labor Market,”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 34, No. 3, 2012.
2. 김진영,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2007, pp.1-72.
(Translated in English) Kim, Jin-Young, “University Rankings and Labor Market,”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Vol. 13, No. 3, 2007, pp.1-72.
3. ———, “대학 서열과 임금격차 변화,”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Ⅲ)』,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Translated in English) Kim, Jin-Young, “Changes in University Rankings and Wage Gap,” *Linkage and Performance between Education and Labor Market (Ⅲ)*,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1.
4. 김홍균 · 이지민,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편입생 vs 비편입생,” 『재정학연구』, 제3권 제3호, 2010, pp.107-129.
(Translated in English) Kim, Hong-Kyun and Ji-Min Lee, “The Effect of University Ranking on Earnings: Transfer Student vs Non-transfer Student,”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Vol. 3, No. 3, 2010, pp.107-129.
5. 김희삼 · 이삼호,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7-08, 한국개발연구원, 2007.
(Translated in English) Kim, Hisam and Sam-Ho Lee, *Analysis on the Effects of Higher Education on Labor Market and Its Hierarchy Structure*, Policy Study, 2007-0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7.
6. 남기곤, “지방대학 졸업자의 장·단기 노동시장 성과,”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Ⅲ)』,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Translated in English) Nam, Ki-Gon, “Short- and Long-Term Labor Market Achievements for Graduates,” *Linkage and Performance between Education and Labor*

- Market (III)*,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1.
7. 오호영,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2호, 2007, pp.87-118.
(Translated in English) Oh, Hoyoung, “University Hierarchy and Labor Market Outcome: Wage Differentials between Provincial and Seoul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Graduates,”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 30, No. 2, 2007, pp.87-118.
 8. 유한구, “특목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로 비교,” 『제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09.
(Translated in English) Yu, Hangu, “Comparison of Shadow Education Pathways between Students from Special-Purpose High School and Those from General High School,” *Proceedings of the 4th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Conference*, 2009.
 9. 이경희 · 김태일, “대학순위와 전공의 임금효과 -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45권 제3호, 2007, pp.167-197.
(Translated in English) Lee, Kyung-Hee and Tae-Il Kim, “Gender, College Ranking and Majors, and Earning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5, No. 3, 2007, pp.167-197.
 10. 이규용 · 김용현,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3, pp.69-93.
(Translated in English) Lee, Kyu-Yong and Yong-Hyun Kim, “The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3, No. 2, 2003, pp.69-93.
 11. 이수정,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 분석: 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4호, 2007. pp.455-484.
(Translated in English) Lee, Soojeong, “An Socio-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Cause of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5, No. 4, 2007. pp.455-484.
 12. 장수명,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제33권 제2호, 2006, pp.75-107.
(Translated in English) Jang, Soomyung, “An Analysis on Economic Return to University Rank,”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3, No. 2, 2006, pp.75-107.
 13. 한 준 · 한신갑,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통해 본 대학 간 불평등,”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2006.
(Translated in English) Han Joon and Shin-Kap Han, “Inequality between Universities in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Graduates’ Socio-Economic Performances,” *Proceedings of the 7th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Conference*, 2009.
 14. Lee, Sanghoon, “The Timing of Singaling: To Study in High School or In Colleg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8, No. 3, 2007.

Can Academic Credentials Determine Life Satisfaction?: The Estimates on the Non-monetary Effects of Academic Credentials*

Young-Chul Kim**

Abstract

The excessive hierarchy of colleges has generated the overheated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in South Korea. Many preceding studies discussed the effect of academic credentials on the labor market such as wage premium for graduates from prestigious universities, but few have conducted comprehensive research embracing their non-monetary effects.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set, this study finds strong positive effects of academic backgrounds on both overall life and workplace satisfaction levels. The satisfaction effects are supported by the different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promotion and general social life according to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one's income and job type.

Key Words: academic credentials, university ranking, satisfac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JEL Classification: I26, I31, J71

Received: Aug. 17, 2015. Revised: Oct. 19, 2015. Accepted: Nov. 19, 2015.

* This paper contains a part of the KDI research monograph titled “*An Analysis on the College Entering System in the Labor Market Perspectives*” authored by myself and Hisam Kim in 2012. I am grateful to the KDI fellows for their continuous encouragement and insightful comments. I am also indebted to the two anonymous referees and the associate editor for their valuable suggestions that led to significant improvements of this pape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2015 Research Grant from Sangmyu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03016, Korea, Phone: +82-2-781-7572, e-mail: yckim@smu.ac.kr